

記事索引作成에 관한 小考

申 鉉 三
(情報資料室)

〈차 례〉

- I. 序 論
- II. 索引의 概念 및 種類
- III. 索引의 記述法
- IV. 索引作成의 實際
- V. 結 論

I. 序 論

우리가 日常生活을 營爲하는데 있어서 索引이 없이는 상당한 불편이 뒤따른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注文하는 일, 電話를 하는 일, 旅行計劃, 約束 등과 더우기 圖書館資料의 調査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現代社會의 複雜化, 生活패턴의 多樣化로 現代人の 苦衷은 훨씬 크며, 특히 最新의 情報을 必要로 하는 個人이나 組織에게는 손쉽게 必要情報을 案内해 주는 索引의 役割이 높게 評價될 것이다. 이러한 索引의 機能을 圖書館에 導入하여 活用한 것이 情報의 蓄積과 檢索技法의 發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容易한 情報의 蓄積과 檢索이 情報化社會의 기틀이 되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圖書館·情報學分野의 連續刊行物(이하 連刊物)을 中心으로 電算化를 前提로한 記事索引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索引의 概念 및 種類

索引(index)이란 말은 ‘indicare(指摘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서 1578년 Dyte의 “Dodoens”라는 책속에서 現代的인 意味로 使用되었다는 記錄이 있으며, 中國에서도 “牽引”이라는 單語와 함께 “끌어 당기다”라는 뜻으로 使用되었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36년에 發行된 文世榮編「朝鮮語辭典」에 처음으로 項目化되어 表出되었으나 그 전에 ‘諺文索引’ ‘가나다索引’ 등의 卷末에 表示된 것으로 보아 1936년 이전에도 使用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

Harrod의 用語集에는 “索引은 順次的으로 그 位置를 表示하는 페이지수나 다른 記號의 方法으로 추적하기 위한(to be traced) 각 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情報를 주는 組織的으로 排列된 리스트”³⁾로 定義하고 있으며, 司空哲教授도 “索引은 情報源에 포함되어 있는 情報의 內容을 項目으로 抽出하여 그 所在를 容易하게 探知할 수 있도록 所在指示記號를 添附하여 一定한 順序로 排列한 檢索媒體”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檢索媒體를 作成하는 一聯의 過程을 索引作業이라 하며 索引作業은 圖書, 雜誌, 論文, 其他 文獻資料의 書誌的데이터를 一定한 基準에 따라 組織的으로 排列하여 要望하는 文獻情報를 쉽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하는 作業⁵⁾이다.

우리가 흔히 接할 수 있는 索引으로는 첫째, 圖書의 卷末에 添加된 內容索引이며, 둘째, 圖書館의 카드目錄, 세째, 定期刊行物이나 혹은 圖書 등을 포함한 記事索引으로서 冊子型으로 出版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標目を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著者名, 分類名, 標題名索引 등으로 區分하며 外型的인 形態에 따라 카드型, 光學的인 카드型(비커부-方式), 磁氣型의 마그네틱테입으로 區分할 수 있다. 오늘날 常用되고 있는 索引方法으로는 1) 書名리스트, 2) 키워드索引, 3) 著者索引, 4) 相關索引, 5) 分類索引, 6) WADEX 등을 들 수 있으며,

1) 朴俊植, “索引의 意義와 類型別 特性”, 「圖協月報」, vol.17, no.9, 1976, p.6에서 再引用.

2) loc. cit.

3) Harrod, Leonard M. *The Librarians Glossary*, London, Andre Deutsch, 1977, p.412.

4) 司空哲, 「情報檢索論」,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p.61-62.

5)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編, 「大學圖書館業務便覽」, 서울, 同協議會, 1982, p.227.

키워드索引에는 書名索引, KWIC索引, 워드(word)索引 등이 있다.⁶⁾ 一般적으로 索引을 論할 때에는 主題에 대한 索引을 意味하며 利用者가 特定文獻이나 具體的인 情報 혹은 데이터에 接近할 수 있도록 文獻의 主題內容을 把握하여 적절한 索引語로 表現하기 위한 分析過程을 論하게 된다.

Ⅲ. 索引의 記述法

1. 記入項目

記入項目은 著書의 內容을 알려주는 (to inform) 것이라기 보다는 안내하는 (to guide)것을 意圖한 것으로 基本的으로는 標課(heading), 修飾語(modification), 페이지參照 혹은 位置(locators)의 3項目으로 構成되며 이 중에서 修飾語는 省略되는 경우가 많다.⁷⁾ 索引의 標目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主題索引 등은 主題나 分類項目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圖書館·情報學分野의 索引誌에 대한 考察⁸⁾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대다수의 索引들이 分類體系나 件名리스트 아래 論文名, 誌名(所載誌名), 卷·號, 페이지順으로 排列하고 있다.

修飾語는 ‘標目다음에 記事에서 주어진 情報의 어떤 側面이나 特徵을 指示하기 위해 挿入하는 單語나 句’⁹⁾로서 主題索引에 있어서는 獨自的인 主題標目的 意味를 더 正確히 決定해 주고, 著者索引에 있어서는 著者의 著作(works), 혹은 著作에 관한 記述法(coined statement)을, 特許索引에서는 特許番號 등을 正確히 決定해 주는 것이다.¹⁰⁾ 이것은 더 精確한 修飾語의 경우 그만큼 리스크(risk)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活用한 것으로 副標目이나 著者의 用語選擇(diction) 등이 포함된다.

6) 橋本 昌幸, “索引ファイルの構成,” 「情報管理」, vol.13, no.12, 1971, p.783.

7) Harold Borko and Charles L. Bernier, *Index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p.11.

8) 後藤光明, “雑誌記事索引の記述法の比較,” 「専門圖書館」, 81, 1980, pp.30~35.

9) Harrod, Leonard M., op.cit., p.554.

10) Harold Borko and Charles L. Bernier, op.cit., pp.16~17.

參照表示나 位置表示는 相互參照(cross-reference)나 페이지參照를 意味하는 것으로 각각의 標目과 修飾語의 結合을 위해 使用하며 參照는 標目の 意味를 正確히 해주고 페이지는 位置를 나타낸다.

2. 用語의 調整

主題索引에 있어서 가장 첫번째의 考慮對象은 著者が 表現한 理想, 토픽, 概念을 把握하여 利用者가 接近하기 쉬운 用語로 變換하는 것이다. 用語의 選擇時에는 不必要한 情報가 索引되었는지(over-indexing), 必要한 情報가 누락(omission)되었는지를 잘 把握할 수 있는 索引者가 여러가지 觀念을 통해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索引語間에 分散을 防止하기 위해 一貫性を 維持하는 것을 原則으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相互參照의 方法으로 see, see also, 트레이싱(tracing) 등이 포함된다.

See 參照로 誘導할 수 있는 用語는 同義語, 一般用語와 專門用語, 略語와 풀네임(full name), 反對語, 新語와 舊語 등이 있고, see also 參照에서는 類義語(例 babers/hair stylist), 階層的關聯語(例 alloys/copper alloys/copper zinc alloys) 등을 適切히 구사해야 한다. 索引의 一貫性を 維持한다는 것은 訓練된 索引作成者라도 用語에 따라 概念의 相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索引의 一致, 不一致의 問題가 惹起된다. 이에 대한 要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 ① 人的要因으로 索引者의 專門領域과 能力, 經驗, 索引에 대한 關心, 個性과 心理的 要因 등을 들 수 있다.
- ② 言語的 要因으로는 文獻에 관한 것과 索引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區分되는데 文獻에 속하는 事項은 著者の 語法(diction의 意味)·스타일, 本文의 읽기쉬움(讀易性)·詳細함, 主題分野, 文獻의 種類·量 등이며, 시스템에 관한 事項으로는 索引誌, 使用투울(tool, 디소러스, 件名表 등), 手法(링크·롤의 使用) 등이다.

11) 後藤光明, op.cit., p.30.

3. 物理的 形式

記入項目篇에서 言及된 바 있는 索引의 記入項目은 標題와 修飾語, 參照表示로 構成되며 雜誌記事索引에 있어서는 獨立索引誌와 雜誌掲載索引에 따라 다르겠으나 全體的인 形式은 ①論文名, ②著者, ③所載誌名, ④卷·號(年, 月), ⑤페이지로 構成되는 것이 主流를 이룬다.

論文名과 著者名은 記事에서 典據한 것으로 標題로 쓰일 수 있으며, 誌名과 卷·號, 페이지는 參照表示로 該當記事의 所載誌에서 典據한 것이다. 이 物理的인 形式에 대한 각각의 要素의 基準은 國際的인 標準포맷을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개개 索引의 排列에 관한 事項으로 利用者들의 要求性向을 調査·分析할 必要가 있다. 日本 京都大의 한 調査에 따르면 INSPEC을 利用한 檢索項目의 利用頻度는 키워드 36.3%, 標題 15.9%, 分類項目 15.5%, 著者 14.9%로 키워드, 標題, 分類項目 등의 4項目이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報告되었다.¹²⁾ 이 調査가 시사하는 바는 키워드, 標題등의 項目이 利用者들이 檢索에 活用하는 많은 項目中の 하나이고 적어도 4項目은 手作業에서도 考慮해야 할 事項으로 電算化가 推進될 때에는 하나의 카드만을 作成하겠지만 매뉴얼시스템에서는 4종의 索引카드를 作成해야만 利用者의 要求에 副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索引시스템의 評價

前述한 記入項目과 索引技法 등은 分類코드나 키워드와 같은 用語選擇에 있어서 一般的인 概念을 著者の 語法이나 索引者の 觀念에 따라 相異하게 表現할 수 있으며, 또한 KWIC索引 등에서도 著者가 實際적으로 어떠한 用語를 選擇했는가에 대해서는 問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效果的으로 解決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事項이 考慮되어야 한다.¹³⁾

12) 渡邊豐英, 堀池博巳, “京都大學大型計算機センターにおける情報檢索”, 「情報管理」, vol.27, no.3, 1984, pp.202-213.

13)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編, op.cit., p.227.

- ① 索引業務에 대한 要求調査
- ② 對象文獻의 範圍, 量, 選擇基準
- ③ 索引의 種類
- ④ 收錄期間
- ⑤ 用語選擇
- ⑥ 主題名標目表와 分類法

本稿에서는 KIET 入手 連刊物中 圖書館 情報學分野 100여종을 選定하여 그 중에서 內容을 檢討, 必要한 記事만을 自體分類表에 따라 分類索引과일을 維持하였다. 用語의 調整을 위한 統制語表는 洪琮喜의 「情報學檢索語表¹⁴⁾」를 基本으로 하여 누락된 用語는 追加하는 方法으로 키워드를 統制하였다.

〈圖 1〉 雜誌記事索引카드 見本

INDEX CARD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S	E	L	C	:	D	N	I
10	Title 1								
	Title 2								
20	Author								
	Auth - p								
30	S - Public.								
	Publisher								
	Bibliogr								
40	Keyword								
	Descriptor								
50	Abstracts, 60 Note → 뒷면								

14) 洪琮喜, 「情報學分野의 檢索語表 作成法에 관한 연구」, 『中央大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3, 附錄.

Ⅳ. 索引作成의 實際

1. 固定長필드 (fixed field)

(1) ID-No. (Identification No. 識別記號)

각 記事마다 하나씩의 固有番號를 주어 統制할 수 있도록 한다.

(2) 狀 態

각 레코드의 記入狀態를 아래와 같은 코드를 使用하여 記入한다.

A : 追加되는 레코드 (addition)

D : 削除되는 레코드 (deletion)

C : 既存入力資料의 變更 (correction)

(3) 形 態

收錄되는 記事의 形態를 區分하는 필드로 出版事項, 書誌事項 등의 記入例가 달라진다.

J : Journal

C : Conference, Proceeding

M : Monograph

N : Newspaper

R : Report, Paper

↳ : 기타

(4) 言 語

原文의 使用言語를 記入하는 項目으로 만약 2 個國語이상으로 기술되었을 때에는 代表的인 言語名 하나만을 記入한다.

Ch : Chinese	Jap : Japanese
Eng : English	Kor : Korean
Fr : French	Pol : Polish
Ger : German	Rus : Russian
It : Italian	Sp : Spain
	♫ : 기타

(5) 分類 코드

이 項目은 여러 種의 既成分類表中에서 圖書館·情報學에 關聯된 部分을 典據하여 再組織한 것으로 두개까지의 코드를 記入하도록 設計하였으며 該當資料의 量에 따라 追加, 削除 및 細分할 수 있다.

코드	分野	備考
A 01	一般問題	政策, 制度
A 02	著作權, 著作權法	
B 01	圖書館學一般	書誌學·計量書誌學 등 包含
B 02	書誌, 圖書目錄	
B 03	教育	
B 04	研究	
C 01	目錄·目錄法	
C 02	分類·分類法, 分類表	
D 01	管理	維持등
D 02	圖書館運營	利用
D 03	閱覽·貸出	
D 03	參考奉仕	
E 01	自動化	
E 02	圖書館相互協力	
F 01	館種別 圖書館	學·協會등
F 02	公共圖書館	
F 03	學校圖書館	
F 04	特殊·專門圖書館	
G 01	讀書·讀書指導	
H 01	非圖書資料	
J 01	情報學一般	

코 드	분	野	備	考
J 02	研究		情報理論, 定義論包含	
J 03	情報政策			
K 01	情報시스템		DB, MIS 등	
K 02	情報機關, 센터			
L 01	言語問題		記號, 文字 등	
M 01	索引			
M 02	抄錄			
N 01	情報蓄積·檢索			
N 02	情報서비스, 提供			
P 01	Information Technology		Computer, OA 등	
Q 01	Network, Communication			
R 01	Microform 및 應用技術			

(6) 作成日字

資料가 處理된 日字를 記錄하는 項目으로 85년 8월 30일 作成分은 “850830”으로 記入된다.

(7) 作成者

索引카드를 作成한 者의 姓명을 4字로 줄여서 記入한다.

例) 홍길동 → HOKD

(8) 請求記號

自館에서 活用하는 請求記號를 記入하여 原文獻의 位置를 指定해주는 필드로서 KIET에서는 書架番號를 使用한다.

(9) 入手處

資料를 入手한 機關이나 所藏處(locator)를 記入한다.

2. 論文名(記事名)

記事名은 그 記事의 內的인 要素를 가장 適切하게 表現한 用語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完全記入을 要하며 正確性을 기해야 한다. Title 1은 原文 그대로 移記하고 Title 2는 우리말로 翻譯하여 記入한다. 이 項目의 主記入 方法은 다음과 같다. (Title 2는 보류)

- ① 記事名은 完全記入을 原則으로 하고 記事記入이 끝났을 때에는 마침표(·)를 附記한다. 記事名을 內容目次에서 典據할 때는 省略部分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原記事를 보고 詳細하게 記入한다.
- ② 副記事名이 있을 때에는 마침표뒤에 계속해서 記入한다.
- ③ 特輯, 連載 등의 綜合標題가 있을 때는 원래의 記事名외에 綜合標題를 하이픈(-)뒤에 記入한다. 그러나 特輯 등의 標目이 內容이 없거나 標目으로서 意味가 없는 것은 省略한다.

例) 積極的인 政府施策을 바라면서－韓國出版界와 圖書館

- ④ 한 論文이 시리즈로 連載된 경우에는 한 標目속에 모두 記錄한다(年間索引 등에).

例) 司空 哲

情報資料의 選定과 入手

情報管理研究, 4(2): 27 - 31, 1971

4(3): 51 - 54, 1971

3. 著 者 名

該當論文을 記述한 著者의 記入項目으로 著者에 包含되는 事項으로는 그 記事를 作成한 個人, 編者, 共同著者, 團體名 등이 있으며 翻譯物일 경우 翻譯者名도 附記한다. 著者名의 記入에 대한 留意點은 다음과 같다.

- ① 出力時에 著者名을 基本標目으로 하여 排列되므로 原著作에 나타난 著者名을 그대로 典據한다.
- ② 翻譯著者인 경우 原著者名을 標目으로 하지 않고 翻譯者名을 標目으로 한

다. 이것은 排列上의 便宜뿐 아니라 同一한 主題아래 同一한 言語끼리 排列하며, 記事도 譯者名과 同一한 言語로 構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翻譯記事는 原著名을 記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③ 共同著者일 경우 세미콜론(;)으로 區分한다.
- ④ 3人 이상의 共著者가 있을 때는 첫 1人만 記入하고, et al. (혹은 外)을 記入한다.
- ⑤ 團體著者는 編을 附記한다.
- ⑥ 外(et al.), 編, 譯 등의 著者表示(qualifier)는 著者名 다음 한칸 띄고 (,), 쉼머(,)뒤에 附記한다.

4. 著者事項

著者와의 接觸을 위한 著者의 所屬機關名이나 住所를 記入하며 共著者일 때에는 첫 著者名 事項만 記入한다.

5. 所載誌名 (source publication)

該當記事가 收錄된 雜誌名, 報告書名 등과 出版社, 出版地, 卷·號事項을 記入한다.

(1) 誌名

該當記事가 所載한 原文獻名을 記入하는 項目으로 雜誌名은 ISO 4 基準에 따른 略誌名을 原則으로 한다.

(2) 出版事項

出版地와 出版社를 콜론(:)으로 區分하여 記入하며, 會議錄은 會議場所, 日程까지 記入한다.

(3) 卷・號事項

記事가 收錄된 原文獻의 卷・號・페이지를 記入하는 項目으로 統一性を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表示方法을 따른다.

卷(號) : 페이지, 年度

기타 자세한 것은 KIET의 連刊物目錄規則¹⁵⁾에 따르며 크기, 圖, 表 등의 對照事項은 省略한다.

6. 索引語 1, 2

索引語 1은 記事를 構成하는 單語 中 冠詞, 前置詞 등을 제외한 主題를 나타낼 수 있는 單語를 記入하고 索引語 2는 統制語表에서 典據한 用語를 記入하는 項目이다. 키워드와 키워드는 슬래시(/)로 區分해준다.

7. 抄 錄

記事名을 비롯한 所載誌名, 키워드 등만으로 原文의 內容을 把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記事에 대한 包括的인 內容을 記述할 項目이 必要하다. 여기서는 文獻의 內容을 簡略하게 記述한 抄錄을 記入하는 項目으로 原文獻에 著者抄錄, 編輯者抄錄이 있을 때는 그대로 移記하고, 抄錄이 掲載되지 않는 記事는 國文抄錄을 作成하여 記入한다.

8. 註 記 事 項

위의 事項外 原文의 內容이나 體裁 등을 補完할 수 있는 特別한 註記事項을 記入하여 原文探索에 便宜를 圖謀한다.

15) KIET에서 作成한 連刊物 目錄作成 Manual.

V. 結 論

世界的으로 出版되는 2次情報의 量이 急速히 增加되고 있어서 1978 년에는 2,500種을 上廻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機械可讀과일이 作成된 것은 約 700種인 것으로 調査되었다.¹⁶⁾ 이는 수많은 情報源을 몇개의 2次資料에 壓縮시킨 것으로 利用者들에 대한 迅速한 情報檢索을 補助하는 役割을 遂行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온라인檢索에서 包括적인 複合主題의 檢索, 迅速性, 大量性 등을 높게 評價할 수도 있으나 國內의 與件, 즉 機械普及의 低調, 우리말 檢索 및 統制語表의 開發 등에 대한 問題點을 고려하였고 특히 다음과 같은 매뉴얼檢索의 機能¹⁷⁾에 대한 效率性を 提高하기 위한 매뉴얼檢索을 爲主로 하였다.

첫째, Browsing 機能으로 利用者が 직접 檢索함으로써 테마를 限定짓는 다든지, 눈으로 봄으로 해서 새로운 情報에 接할 수 있는 機能이 있으며,

둘째, 著者名으로 찾는 다든지, 어떤 文獻을 單純하게 檢索할 수 있는 Simple search 機能이 있으며,

셋째, 현재 온라인데이터베이스가 10년을 소급해서 製作되었다고 할 경우 그 이전의 情報은 漏落된다는 점을 감안한 More extensive cererage의 機能을 들 수 있다. 이 機能은 특히 國內의 實情으로 보아 遡及調査에 活用할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效率的일 수 있다.

그러나 業務側面에서 볼 때 年間 入手되는 連刊物이 100種이라고 假定할 때 處理해야 할 冊數(issue)는 700~800冊이며 하나의 冊속에 5~6件的 記事가 掲載되었을 경우, 4,000件的 記事索引을 作成해야 한다. 또한 4,000건의 記事를 檢索에 活用하기 위해 分類카드, 著者카드, 標題카드, 키워드카드 등 최소한 4개의 카드를 作成해야 하므로 결국 16,000매의 카드를 作成, 파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龐大한 作業量과 카드生産에 따른 人力, 備品 등을 감안하면

16) Beaman, T.C., *Secondary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ARIST, 13, 1978, p.181.

17) 山口 直比古, "オンライン情報檢索と抄録 索引誌—圖書館の立場から—", 「情報管理」, vol.26, no.6, 1983, pp.22 ~ 28.

機械化의 方案을 檢討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생각이라고 判斷되며 本稿에서도 매뉴얼方式의 非能率的인 部分을 점차적으로 改善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基本的인 事項들이 考慮되었다.

〈參考文獻〉

1. Beaman, T.C., *Secondary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ARIST, 13, 1978.
2. Harold Borko and Charles L. Bernier, *Index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3.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編, 「大學圖書館業務便覽」, 서울, 同協議會, 1982.
4. 渡邊豐英, “京都大學大型計算機センターにおける情報檢索”, 「情報管理」, vol.27, no.3, 1984, pp.202 ~ 213.
5. 朴俊植, “記事索引作成의 標準化를 위한 試論”, 「國會圖書館報」, vol.12, no.7, 1975, pp.10 ~ 17.
6. _____, “索引의 意義와 類型別 特性”, 「圖協月報」, vol.17, no.9, 1976, pp.6 ~
7. 山口直比古, “オンライン情報檢索と抄録・索引誌”, 「情報管理」, vol.26, no.1, 1983, pp.22 ~ 28.
8. 竹内壽, “索引作成法”, 「情報管理」, vol.13, no.11, 1971, pp.723 ~ 730.
9. 後藤光明, “雜誌記事索引の記述法の比較”, 「專門圖書館」, 81, 1980, pp.30~35.